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2026 고1 공통국어1 미래엔 | 1(2) 카메라와 워커 기술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카메라와 워커」에 등장하는 '나'와 훈이의 심리 및 가치관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략된 앞부분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전쟁을 겪은 전후 세대인 '나'가 훈이에게 안정된 삶을 강요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품 속에서 '나'의 관찰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훈이의 내면을 이해하고, 훈이의 말과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와 '워커'라는 소재에 대한 '나'와 훈이의 가치관 차이를 보여 주며, 작품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나'가 1인칭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훈이와의 대화와 행동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반을 문과 이과로 나누게 되었고, ㉠훈이가 나한테는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문과를 택한 걸 나는 나중해야 알았다. 나는 우선 그런 문제를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한 게 서운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오빠가 전문학교에서 문과였다는 것만으로 덮어놓고 문과를 싫어했다. 그래도 나는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빠가 평생 사회에 참여해서 돈 한 톨 벌어들인 일이 없는 주제에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엔 끼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문과 출신이라는 것과 반드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니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 어머니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일을 바로잡아 보리라 마음먹었다. 나는 학교에 쫓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애걸하다시피 해서 훈이가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훈이를 설득하려 들었다. 나는 막연히 훈이를 두려워하면서 중언부언 내 말을 했고, 훈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젊은이다운 대담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

“훈아, 너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더 적성에 맞는데. 좀 좋아. 공대 같은 데 가면 요새 공장이 많이 생겨서 공대 출신이 제일 잘 팔린다더라.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 문과 가서 뭐 하겠니? 그야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우냐, 까딱하단 ㉢문학이나 철학이나 하기가 꼭 알맞지. 아서라, 아서. 사람이 어떡하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냐, 뭐 이런 게지. ㉣돈을 어떡하면 많이 벌 수 있냐 하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냐, 뭐 이런 생각 말이야. 그리고 오늘 고깃국을 먹었으면 내일은 갈비찜을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순선데, 내 이웃은 우거짓국도 못 먹었는데 나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하고 ㉤이미 배 속에 든 고깃국조차 의심하는 바보짓 말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빙나가기 시작하면 영 사람 버리고 마는 거야. 어떡허든 너는 이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돼야지 괜히 사회의 병폐란 병폐는 도말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건 없잖아.”

“고모,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훈이가 내 말의 중턱을 자르며 푸듯이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훈이가 아버지에게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훈이한테 느닷없이 들리고 만 것 같아 더 그랬다.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다시 아까 한 소

리를 간곡하게 되풀이했다. 내 말에 감동했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훈이는 내가 옮겨 준 대로 이과에 잘 다녔다.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은 떨어졌다.

-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면서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 ④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교체되며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2.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훈이는 훈이의 진로를 두고 갈등하게 되었다.
- ② 어머니는 훈이가 문과를 선택하자 오빠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 ③ '나'는 훈이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문과보다 이과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 ④ 훈이는 자신이 문과를 지망하고자 하는 것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
- ⑤ '나'와 '담임 선생님'은 훈이가 문과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 3. ㉠과 관련된 '나'의 속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훈이가 이과를 선택하는 것이 훈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야.
- ② 훈이가 상의도 없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정한 것 같아 서운해.

- ③ 훈이가 문과에 맞는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 ④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과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 ⑤ 오빠가 전쟁 중에 죽은 것은 오빠가 문과 계열을 전공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훈이는 '나'와 상의도 없이 문과를 택했다.
- ② '나'는 자신의 오빠가 사회에 순응하지 않고 사회의 병폐를 도맡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 ③ 훈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과에서 문과로 진로를 바꾸었다.
- ④ '나'는 어머니의 앞에서는 훈이를 대변하였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생각에 동의했다.
- ⑤ '나'는 훈이를 이과로 옮기지 않으면, 오빠처럼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 5. ㉡~㉤ 중 '나'가 바라는 삶의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을 모두 고르시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훈이가 대학에 다니는 4년 동안 내내 대학가는 어수선해서 데모, 휴교, 조기 방학의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데모가 있을 때마다 ㉠나는 훈이가 그런 데 휩쓸릴까 봐 애를 태우고 미리미리 타이르고 했다.

“행여 그런 데 끼지 마라. 관심도 갖지 마라. 너는 기술자가 될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밥벌이 걱정은 안 해도 될 기술자란 말야. ㉡기술자는 명확한 해답을 얻어 낼 수 있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고는 혹시 꿈에 빠져서라도 그런 데 끼어들었다간 졸업 후 취직도 못 하고 일생 망치기 십상이라고 공갈을 쳤고, 너는 꼭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예쁜 색시 얻어 일요일이면 카메라 메고 동부인해서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은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를 했다. ⑥훈이는 한 번도 말대꾸하는 법이 없었지만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다. 그러면 나는 괜히 부끄러워서 땀전을 보며 지껄여 댔다. 나는 부끄럼을 타면서도 꽤나 즐기치게 그런 말을 훈이에게 했었나 보다. 대학교 졸업반 때 나는 돈의 여유가 좀 생긴 김에 훈이에게 카메라를 하나 사 주고 싶어 의향을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는 말이

“고모, 난 카메라라면 지긋지긋해. 이가 갈려. 생전 그런 거 안 가질 거야.”

(나)

그럭저럭 무사히 졸업하고 입대했지만 곧 의가사제대를 할 수가 있었다. 이제 취직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⑥대기업은커녕 착실한 중소기업의 문턱도 낮지는 않았다. 막상 취직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식으로 이공계보다는 인문계 출신의 문호가 훨씬 넓어 보이는 게 우선 나로서는 적잖이 속상한 일이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훈이가 그런 문제에 나를 원망하려는 기색이 조금도 안 보이는 거였다. 말없이 고분고분 취직 시험을 수없이 보고, 보는 족족 떨어졌다. 어떤 곳에선 아예 서류 심사부터 낙방을 시키는 걸 보면 대학교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다.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 나 재벌이나 판검사나 그런 게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④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 가르쳐 대기업에 붙여, 공일 날 카메라 메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 주지를 않았다. 취직 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니, 보러 가기도 보러 가라기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제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 왔다.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찜찜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

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딴 이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말투였다. ⑥나는 뒀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글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살아 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이 만들어 놓은 고아인 저 녀석을, 온 정성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운 게 결코 내 어머니를 떠맡기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단.

제가 잘되고 잘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①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은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 6. ㉠과 같은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 ① 학수고대(鶴首苦待), 좌불안석(坐不安席)
- ② 학수고대(鶴首苦待), 만시지탄(晩時之歎)
- ③ 오매불망(寤寐不忘), 학수고대(鶴首苦待)
- ④ 오매불망(寤寐不忘), 전전긍긍(戰戰兢兢)
- ⑤ 전전긍긍(戰戰兢兢), 좌불안석(坐不安席)

## 7.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훈이에게 적성에 맞지 않은 전공을 선택하도록 한 것을 후회했다.
- ② 훈이는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라 성적이 떨어졌다.
- ③ ‘나’는 훈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 ④ 훈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나’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
- ⑤ ‘나’는 훈이의 반항적인 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끊고 오로지 자기 생활에만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 ② ㉡: 자기 생활만을 우선시하는 '나'의 가치관에 대해 훈이가 거부감을 느낌을 알 수 있다.
- ③ ㉢: 취업난이 심각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훈이의 삶과 대조되는, '나'의 삶이 드러나 있다.
- ⑤ ㉤: '나'의 내면에 대한 훈이의 생각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나'의 심리가 드러난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훈이가 추구하는 미래이다.
- ② 전쟁의 상처와 연관된 '나'의 삶의 목표이다.
- ③ 훈이의 해외 취업에 관해 '나'가 걱정하는 바이다.
- ④ '나'가 훈이에게 오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이다.
- ⑤ 훈이가 '나'의 강요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는 이유이다.

10.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역순행적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며 작품의 주제 의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③ '나'가 자신의 내면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만,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의 심리를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며 독자에게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이 소설은 중심 소재를 통해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중심 소재 중 하나인 카메라를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을 설명해 볼까요?

- ① '나'에게 카메라는 나의 오빠가 갖지 못했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편안하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의미해요.
- ② '나'에게 카메라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다 보면 누릴 수 있는 삶을 의미해요.
- ③ 훈이는 카메라가 상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장군, 재벌이나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④ 훈이는 '나'와 달리 카메라가 상징하는 삶의 방식을 긍정하고 있지 않아요.
- ⑤ 훈이는 자신에게 카메라를 즐기는 삶을 살라고 설득하는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나서지는 않아요.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망할 녀석,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쩌면 엽서 한 장이 없니?”

[A] ㉡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개울로 갔다. 세수를 하곤 꿈무늬에서 피죄죄한 수건을 떼다가 얼굴을 북북 문질렀다. 수건에서 너무 역한 쉰내가 나서 ㉢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훈이가 똥 모를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 살갓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그릇처럼 암갈색의 광택이 났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도록 선명하게 희었다.

“어디로 좀 가자꾸나.”

“주임한테 얘기하고…….”

“아직도 퇴근 시간 안 됐니? 일곱 시가 넘었는데.”

“밤일이 있어.” / “뭐 밤에도 측량을 다녀?”

“밤일은 측량이 아니라 제도야.”

그러고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을 섰다.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네 하숙집에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 달래 먹으면 안 될까?”

“진부까지 나가서 먹지 뭐.”

“진부에 특별히 음식 잘하는 집이라도 있니?”

“아뇨, 그냥 진부까지 나가 보고파서.”

할 수 없이 다시 진부로 나왔다. ⑥손바닥만 한 진부의 야경에 훈이가 사뭇 휘황해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너는 이까짓 데도 자주 나와 보지 못한 게로구나. 낮에 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이 널렸더라만.”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냐. 관리직이나 그 밖에도 빈들덜 수 있는 직종이야 수두룩하니까.”

⑥“그까짓 공사판에도.....”

“네, 그까짓 공사판에도요.”

녀석이 갑자기 씹어뱉듯이 말했다. 그러곤 말없이 불고깃집으로 들어갔다. 한증막처럼 후텁지근한 속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에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나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 댔다. ④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던 훈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다.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가 보지.”

“하숙집에선 잠만 자고 식사는 회사 식당에서 하는걸.”

“그래,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제해.”

⑥“봉급은 얼마나 받는데?”

실상은 가장 궁금했던 걸 이제서야 자연스럽게 물었다.

[B] “거진 한 삼만 원 되지만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 몇천 원 떨어질까 말까야. 가끔 소주 파티에 빠질 수도 없고, 그 재미도 없인 정말 못 참아 내겠는걸 뭐. 집에다 돈 부쳐 달란 소리 안 하는 것만도 내 댄엔 큰 안간힘이라구.”

“그래, 회사 식당 식사가 먹을 만하니.”

⑦“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폴대 메고 하루 몇십 리씩 산골을 누비는 나도 기똥차구.”

말 안 해도 그 지칠 줄 모르는 식욕과 게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알 만했다.

“하여튼 짜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대구. 아침 일곱 시서부터 폴대 메고 헤맬 데 안 헤맬 데 다 헤매다 기진맥진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을 멕이곤 또 밤일을 시켜 가면서도 주임에, 과장에, 소장이 번갈아 가며 연방 공갈을 친대구. 뭐 우리 공구의 공사 진척이 제일 늦는다나.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기막힌 계산을 그분들한테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란 생각이 먼저 들어 기를 못 펴게 되니 더러워서.....”

-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 1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인물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작품 밖의 서술자가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이 드러난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인물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1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나’와 훈이의 외양을 대조하여 훈이에 대한 ‘나’의 우려가 맞았음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다.
- ② [A]는 훈이의 달라진 외양을 통해 훈이가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는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④ [B]는 대화를 통해 ‘나’와 훈이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부정적인 세태에 대한 인물의 비판 의식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4. ㉠과 ㉡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 ② ㉠은 ㉡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
- ③ ㉠은 ㉡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에게 질문을 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은 ㉠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15.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오랜만에 훈이를 만난 '나'의 반가움이 드러난다.
- ② ㉡: 훈이가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면서도 공사판에 남아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③ ㉢: 공사 현장에 대한 '나'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④ ㉣: 고된 생활로 달라진 훈이의 모습을 본 '나'의 비참하고 끔찍한 심정이 드러난다.
- ⑤ ㉤: 고된 생활을 하는 훈이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나'의 심리가 드러난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개울물을 돌로 막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과 이불 훌청에는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세상에 요즈음은 아무리 구더기 밑살같이 사는 집구석이기로서니 이는 없이 살건만 이게 웬일일까.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은 이를 지겹게 눌러 죽이다 못해 한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농땡이 잘 안 되겠는데, 고모.”

풀이 죽어 돌아온 훈이의 말이었다.

“그까짓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일찌거니 집어치우는 게 낫겠다.”

“그건 싫어.”

“왜 싫어?”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연 예기치 못했으므로 당황할밖에 없었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 주고 싶어.”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나?”

나는 훈이 말에 무섭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말아.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놓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냐.”

“그래 참, 잘될 수도 있을 거야. 잘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말고.”

나는 별안간 잘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1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들의 대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전개를 빠르게 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새롭게 알게 된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인물이 느끼고 있는 내적 갈등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17. [A]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훈이는 할머니와 고모의 개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 ② 훈이는 '나'의 개입에 대해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③ 훈이는 부당한 현실에 망연자실하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 ④ 훈이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훈이는 자기 나름대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는 '나'를 통해 훈이에게 강요되었던 기성세대의 막연한 이데올로기는, 산업화 과정의 효율적 성장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참히 짓밟힌다. '나'가 소개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 착취에 시달리며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 훈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 ① 오늘날에도 취업을 위해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학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 ②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숭고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여유를 함께 가지는 것도 중요해.
- ③ 아랫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의 원인이 윗세대에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윗세대가 먼저 나서서 이를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해.
- ④ 현대 물질문명의 부정적 요소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했던 과거의 대가족 문화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 ⑤ 전쟁 후 성장 주도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을 도구처럼 다루었던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

19. <보기 1>은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며, <보기 2>는 본문의 앞부분에서 '나'가 한 말이다. 윗글과 <보기 1, 2>를 바탕으로 두 인물이 갈등하는 까닭을 적절하게 파악한 것은?

<보기 1>

- 1950년대의 사회·문화: 사람들은 6·25 전쟁을 겪은 후 가난과 생존에 관한 두려움을 느껴 풍요로운 삶에 관한 욕구를 지님.
- 1970년대의 사회·문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발전함. 이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생겼고,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함.

<보기 2>

그 녀석이 꼭 이 땅에서, 내 눈앞에서 잘살아 주었으면 하는 내 간절한 소망의 참뜻을, .....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은 깊숙한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인가.

- ① 6·25 전쟁의 비참함을 직접 겪은 기성세대인 '나'는 훈이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소망하지만, 전후 세대인 훈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소망이 당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②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 성장한 기성세대인 '나'는 훈이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소망하지만, 6·25 전쟁의 비참함을 직접 겪은 전후 세대인 훈이는 그 소망이 당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③ 6·25 전쟁의 비참함을 직접 겪은 기성세대인 '나'는 훈이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를 소망하지만, 전후 세대인 훈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소망이 당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④ 6·25 전쟁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기성세대인 '나'는 훈이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소망하지만, 전후 세대인 훈이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습을 통해 그 소망이 이기적인 것임을

배웠기 때문이다.

- ⑤ 6·25 전쟁의 비참함을 직접 겪은 기성세대인 ‘나’는 훈이의 성공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하지만, 전후 세대인 훈이는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그 소망이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개울물을 돌로 막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과 이불 홀청에는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세상에 요즈음은 아무리 구더기 밀살같이 사는 집구석이기로서니 이는 없이 살건만 이게 웬일 일까.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은 이를 지겹게 눌러 죽이다 못해 한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농땡이 잘 안 되겠는데, 고모.”

풀이 죽어 돌아온 훈이의 말이었다.

“그까짓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성할 때 일찌거니 집어치우는 게 낫겠다.”

“그건 싫어.”

“왜 싫어?”

④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연 예기치 못했으므로 당황할밖에 없었다.

“⑥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 주고 싶어.”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나?”

나는 훈이 말에 무섭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말아.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놓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

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냐.”

“그래 참, 잘될 수도 있을 거야. 잘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말고.”

③나는 불안간 잘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그렇지만 고모, 잘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진 마. 와이로 쓰고 빌붙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야. 여기 와 보니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도룩해.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 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⑩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 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너는 이런 국토 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흠먼지를 뒤집어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 고속 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⑨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댄 데를 바라보았다. ⑦논의 벼는 비단 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밭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 연봉의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내와 개울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내리기 힘든 고장인가.

훈이가 젓먹이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화해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



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 가며 키웠다.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연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 박완서, 「㉠카메라와 워커」

## 20. 훈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이 강요하는 삶보다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 ②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
- ③ 풍족하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자신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한다.
- ④ 자신이 처한 상황의 부조리함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 ⑤ 기성세대가 믿고 있는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21. 밑줄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바람과 다른 삶을 사는 훈이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② 현실과 괴리되는 자신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③ 조카의 삶의 방향까지 좌우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
- ④ 자신과 달리 주체성을 지닌 훈이를 보며 남의 말에 휘둘렸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⑤ 훈이에게 자신의 선택과 가치관을 강요한 일을 반성하고 있다.

## 22.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훈이의 반응이 '나'의 예상과 어긋났음을 알 수 있다.

- ② ㉡: 정직과 근면에 대한 '나'와 할머니의 믿음이 부질없음을 보여 주고자 하는 훈이의 심리가 드러난다.
- ③ ㉢: '나'가 훈이가 택한 삶의 방식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 '나'의 기대와 달리 고생하는 훈이의 모습을 외면하고 싶은 '나'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시선에 따라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혼란스러운 인물의 심리와 대조되는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④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풍경에 대한 인물의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상황을 상징하는 소재를 통해 갈등의 해결을 암시하고 있다.

## 2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하게 파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고통을 소통으로 치유한 이야기꾼, 박완서  
박완서 작가는 1970년대 소설가로 등단해 40년 동안 전쟁과 개인사의 아픔을 끊임없이 글로 풀어냈습니다. 개성 외곽에서 태어난 박완서 작가는 6·25 전쟁 때 오빠를 잃는 등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고 그 아픔을 글로 따뜻하게 풀어내어 자신과 독자들의 고통을 치유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 ① 6·25 전쟁이 파괴한 자연환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

- ②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
- ③ 6.25 전쟁 이후 도시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기 위한 노력
- ④ 6.25 전쟁이 상징하는 남북의 이념 대립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비판하기 위한 노력
- ⑤ 6.25 전쟁으로 인해 물질 중심의 가치가 자리잡은 사회의 모습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응하려는 새로운 세대의 노력

25. ㉠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의 태도	‘훈이’의 태도
카메라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삶 ... ①	자신의 노력이 아닌, 기성세대의 지원으로만 가능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삶 ...②
워커	고단한 노동 현실과 사회에서 무시받고 가난하게 고생하며 사는 삶 ... ③	가난하고 힘겨운 비정규직이지만 스스로 감당하고 버티겠다고 다짐한 삶 ...④

↓

제목의 의미	성실하고 근면하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과 기대를 좌절시키는 현실 ...⑤
--------	--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의 주인공인 '나'가 훈이의 말과 행동을 주관적인 시각에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① 윗글의 서술자인 '나'는 자신이 관찰한 훈이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인 '나'가 이야기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심리만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윗글의 서술자인 '나'는 이야기 내부에 존재하며,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윗글의 서술자는 '나'뿐이며, 서술자의 교체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 2. [정답] ⑤

'나'는 훈이의 장래를 위해 훈이를 이과로 옮기고자 했으며, '담임 선생님'이 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 ① 훈이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문과를 택한 것이나, 이를 알게 된 '나'가 훈이를 강제로 이과로 옮긴 것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② 오빠가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에 동참한 것은 문과 출신인 것과 상관이 있다고 믿는 어머니가, 훈이가 문과를 선택한 것을 알게 되고 지레 겁을 먹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③ '나'가 어머니의 말에 속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이과로 가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며 훈이를 설득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④ 훈이가 '나'와 상의도 없이 문과를 택한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3. [정답] ③

'나'는 훈이가 문과에 가서 문학이나 철학을 전공할까 봐 이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지, 문과에 맞는 재능이 없어서 이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나'가 훈이를 강제로 이과로 옮기고, 이것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② 훈이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문과를 택한 걸 알게 되고 서운했다고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④ 문과에 가서 사회의 병폐에 대해 앓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는 대신 이과에 가서 사회에 순응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⑤ 오빠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에 끼어들고 말았다는 어머니의 생각에, '나'도 속으로 동조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4. [정답] ③

훈이가 자기 아버지의 전공이 문과였음을 알게 되고, 이과에서 문과로 진로를 바꾼 것은 아니다.

- ① 훈이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문과를 택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② 자신의 아버지가 '사회적 병폐란 병폐는 도말아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냐고 묻는 훈이의 말에, 자신이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 들킨 것 같았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④ 훈이 편이 되어 고등학교 문과가 반드시 장래 문학 지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어머니를 설득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어머니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⑤ '나' 역시 어머니처럼 오빠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에 끼어들고 말았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훈이를 이과로 옮겼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5. [정답] ①, ③

- ㉠와 ㉡ 모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에 중심을 두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나'가 바라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④, ⑤ '나'는 오빠가 ㉠, ㉡, ㉢처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며, 훈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6. [정답] ⑤

‘전전긍긍’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또한 ‘좌불안석’은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① ‘좌불안석’은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라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하지만 ‘학수고대’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학수고대’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만시지탄’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학수고대’는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전전긍긍’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또한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④

장래에 대한 ‘나’의 훈계에, 훈이가 ‘거칠고 대담한, 그리고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봤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① (가)에서 ‘나’가 훈이에게 적성에 맞지 않은 전공을 선택하도록 한 것을 후회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② (가)에서 훈이가 대학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에서 ‘나’가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훈이가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계속 강요했기 때문이다.

⑤ (가)에서 ‘나’가 훈이의 반항적인 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8. [정답] ④

④는 ‘나’가 훈이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에 해당한다.

① ㉠은 대학에 입학한 훈이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데모에 참여하기보다는 오로지 자기 생활에만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나’가 하는 훈계에 해당한

다.

② ⑥는 사회 문제보다는 자기 생활만을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를 강요하는 ‘나’의 말에 훈이가 보인 반응으로, 이를 통해 훈이가 ‘나’에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⑥는 ‘나’의 기대와 달리 훈이가 마주하게 된 현실로, 당시 취업난이 심각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⑤ ⑥는 ‘나’가 자신의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훈이의 생각을 듣고 보인 반응으로, 훈이가 자신과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에 놀라 어이없어하는 ‘나’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 [정답] ②

㉠은 전쟁을 겪은 ‘나’가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으로 훈이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

① ㉠을 추구하는 것은 ‘나’뿐이다.

③ ㉠은 ‘나’가 훈이의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이유이지만, 훈이의 해외 취업에 관해 ‘나’가 걱정하는 바는 아니다.

④ ㉠이 ‘나’가 훈이에게 오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이 훈이가 ‘나’의 강요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10. [정답] ③

윗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내면을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나’의 시점에서 최소한의 정보와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다.

① 윗글의 서술자인 ‘나’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역순행적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② 윗글의 서술자인 ‘나’는 작품 속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는 자신의 주관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윗글의 서술자인 ‘나’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며, 자신의 심리만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윗글의 서술자인 ‘나’는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다. 또한 자신을 제외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전

달하지만, 주관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전달하고 있다.

11. [정답] ③

윗글에서 훈이가 카메라가 상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장군, 재벌이나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① 문과를 전공하여 사회 문제에 참여하다 죽은 오빠와 달리, 훈이는 이과를 전공하여 카메라로 상징되는 안정적인 삶의 재미를 느꼈으면 한다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② 훈이가 카메라로 상징되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다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④, ⑤ 훈이가 안정적인 삶에 대해 훈계하는 '나'를 쏘아봤지만, 말대꾸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12. [정답] ①

작품 속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기보다는 '나'의 심리나 '훈이'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윗글의 서술자인 '나'는 작품 속에 존재하며,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③ 윗글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윗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윗글은 작품 속 주인공인 '나'의 주관적인 서술을 통해, 인물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13. [정답] ②

[A]에서 '나'가 오랜만에 만난 훈이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훈이가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① [A]에서 '나'와 훈이의 외양을 대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B]에서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④ [B]에서 대화를 통해 '나'와 훈이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⑤ [B]에서 훈이가 반어법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세태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14. [정답] ③

윗글에서 '나'는 오랜만에 훈이를 만나 훈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훈이는 '나'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① 윗글에서 훈이가 '나'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윗글에서 훈이가 '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윗글에서 '나'가 훈이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윗글에서 '나'가 훈이를 설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5. [정답] ②

㉞는 훈이가 도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① ㉠를 통해 오랜만에 훈이를 만나 반가우면서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 등을 느끼는 '나'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를 통해 공사 현장 역시도 바깥 사회와 마찬가지로 기술직보다 관리직을 우대한다는 '나'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를 통해 훈이가 자신의 기대와 달리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나'가 비참하고 끔찍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를 통해 고된 생활을 하는 훈이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나'가, 적어도 고된 생활을 견딜 가치가 있을 만큼의 보상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6. [정답] ④

제시된 부분에서 '나'는 훈이와의 대화를 통해 그전

에는 알지 못했던 훈이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게 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윗글에서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윗글에서 구체적인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윗글은 인물들의 대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윗글에서 인물이 느끼고 있는 내적 갈등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형상화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17. [정답] ③

[A]에서 훈이는 부당한 현실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현실에 망연자실하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 ①, ②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놓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④ 자신도 어느 만큼은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⑤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이 흘러가는 양상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18. [정답] ⑤

<보기>는 '나'가 훈이의 삶에 개입한 이유와 관련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보여 준다. 이는 작품 속에서 훈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전쟁 후 성장 주도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처우를 받지 못한 채 일했던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 후 성장 주도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을 도구처럼 다루었던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① 윗글이나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학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반응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윗글이나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숭고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여유를 함께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반응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윗글이나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아랫세대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의 원인이 윗세대에 있으므로, 윗세대가 먼저 나서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윗글이나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현대 물질문명의 부정적 요소들을 타파하기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했던 과거의 대가족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19. [정답] ①

<보기 1>과 <보기 2>를 통해 '나'가 훈이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소망하는 것이 6.25 전쟁의 비참함을 직접 겪으며 얻은 상처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기 1>이나 윗글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기성세대의 가치관은,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괴리를 이루며 오히려 젊은 세대가 좌절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 ② '나'가 훈이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소망하는 이유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훈이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 ③ '나'가 훈이에게 바라는 바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 ④ '나'와 훈이에 대한 설명이 모두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 ⑤ 훈이가 '나'의 기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20. [정답] ③

훈이가 공사판에서 벌어지는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신이 그러한 차별을 받는 것이 풍족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①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놓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와 같이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 ②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일



이 흘러가는 양상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④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 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와 같이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⑤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와 같이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21. [정답] ④

윗글에서 '나'가 훈이를 보며 남의 말에 휘둘렸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① 자신을 배웅하는 훈이의 모습을 보기 싫어 먼 편대를 바라보며, 훈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여전히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② 실상을 외면하고 훈이가 국토 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③, ⑤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 가며 키운 것이 빛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22. [정답] ④

④는 왕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훈이의 상황을 보여 주며, 전쟁과는 관련이 없다.

① ㉠을 통해 '나'가 현재의 삶에 훈이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을 통해 기성세대의 믿음이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훈이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을 통해 '나'가 자신이 바라는 훈이의 행복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을 통해 '나'가 훈이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정답] ⑤

㉠에서 인물의 상황을 상징하는 소재를 통해 갈등

의 해결을 암시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① 논, 밭, 오대산 등을 '나'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의 심정과 오대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대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비로드처럼'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오대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이 땅 어디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라는 의문형 문장을 통해 감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4. [정답] ②, ⑤

② 박완서 작가가 6·25 전쟁 때 겪은 개인적 경험이 윗글 속 '나'에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6·25 전쟁 이후 우리 사회가 겪은 현대사의 아픔과 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이 윗글 속 '훈이'에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6·25 전쟁이 파괴한 자연환경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6·25 전쟁 이후 도시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자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6·25 전쟁이 상징하는 남북의 이념 대립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비판하고자 한다고 보기 어렵다.

25. [정답] ②

훈이에게 카메라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기성세대에 의해 강요된 삶을 의미한다.

① '카메라'는 '나'가 훈이에게 강요하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③ '워커'는 훈이가 공사장에서 겪고 있는, 고단하고 가난한 삶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워커'는 훈이가 '카메라' 대신 택한, 고단하지만 주체적으로 택한 삶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카메라'와 '워커'에 대한 '나'와 '훈이'의 대조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이 글의 제목은 '카메라'로 상징되는 기성세대의 이상과 '워커'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의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서지정보

저자 김혜린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8130-6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50410

가격 1,700원

값 1700 원



ISBN 979-11-377-8130-6 (PDF)